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514 15th N.E. Seattle, WA 98125 (206) 778-1972  
 Paul H. Shin, Publisher  
 Chang Sye Kwak, Editor

VOL. 2 NO. 13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975

### 1975년도 한인회

신임 임원 구성코 출범.

지난 12월 14일 총회에서 선출된 신호법 편집: 박종대, 채 욱; 주상걸, 교육; 오계희, (Pall H. Shin) 회장과 부회장에 당선된 황 봉 사; 김 창성, 섭의; 오운복, 여성; Ladell Smith 수철, 조영 재사는 한인회를 위해 수고할 임원들을 추천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한다.

지난 1월 17일 쉿 정기 임원회에 앞서 공의 발표된 1975년도 한인회 임원 및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위원과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한인회 임원

회장: 신호법, 부회장: 황수철, 조영

총무: 장진설, 재무: 김종구, 조직: 조요한

#### • 신임교포 문제 상담소 위원

신호법, 김실동, 김흥기, 소니아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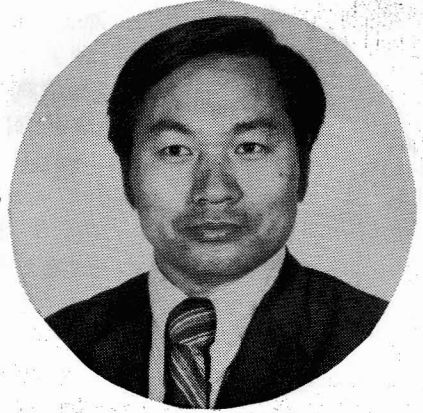
#### • 한인회 이사 (1월 18일 이사회 결과)

이사장: 전계상 부이사장: 이현기  
 이사: 서두수, 이창희, 김형진 (James Kim)  
 남희노울스

#### •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회장: 김현중 부회장: 김길랑

총무: 김명원 재무: 이형설의; 남성삼



### 회장 취임사

### 신호법

황홀과 흥분의

### “아리랑의 밤”

500여 교민 및 미국

親知 참석코 상황.



천애하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갑인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여러분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많은 격동과 불안이 우리 주위에 엄습해 온 한 해였으며 아울러 한인 사회에도 누락된 욕구불만과 단절된 대화로 말미암아 야기된 분기는 여러분과 같이 심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4면에 계속)

## 謹賀新年

한인회 이사회: 전계상 이현기 서두수 이창희 김형진 남희 Knowles

한인회 임원: 신호법 황수철 조영  
 장진설 김종구 조요한 김 창성 오운복  
 박종대 주상걸 오계희 Mrs. Ladell Smith

신임교포 문제상담소위원: 신호법 김실동 김흥기 소니아 김

한인회관 설치위원회: 김현중 김길랑 김명원 남성삼

을묘년 새해아침.



# 황홀과 흥분의 "아리랑의 밤"

## 500여 교민 및 미국 親知 참석코 성황



한인회가 주최하는 "아리랑의 밤"은 아름답게 꾸민 Sea-Tac Motor Inn Ball Room 에서 지난 12월 28일 거행되었다. 크리스 머스와 송구영선(송田義顯)을 겸한 전통적인 "아리랑의 밤"은 500여명의 교민과 미국인 親知들이 입주의 여지없이 참석하여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속에 저녁 8시 정각부터 새벽 2시 30분 (1시간 더 연장하라는 교민들의 요청을 30분만 더 연장함), 장장 6시간 30분을 춤과 노래로 지칠줄 모르게 계속되었다. 이날 객석 중앙 양쪽으로 마련된 무대위에 펼쳐진 캐나다 밴쿠버 (12월 27일 공연)와 오레곤주 (11월 23일 공연)에 까지 아리랑의 밤을 마련하고 돌아온 씨애틀의 아리랑 악단(리타: 권창우)과 배수만씨가 이끄는 타코마의 명물 동양원 밴드가 30분씩 교대로 계속 연주함으로써 모처럼 기대했던 아리랑의 밤을 더욱 즐겁게 하였다. 사회는 명사회자로 정평이 있는 유재철씨가 L.A.에서 일부터 오셔서 수고해 주었다.



압제로 환호성을 지르며 중앙무대에 나온 장병들이 텅텅 텅텅 춤을 추자 커마 저고리를 예쁘게 입은 교포 아가씨들도 멋들어진 가락으로 반반아 어울려 주어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를 받았다. 또 이날 30여곳에서 기부된 30여 가지의 선물은 행운의 주첩으로 당선된 분들에게 기쁨과 행운을 담고 선사했으며 그동안 한인회보 발전에 수고 많은 과총에서와 주소득 표지 및 도안과 "아리랑의 밤" 프랑카드를 써주신 신 부식씨에게 특별 선물을 선사하였다. "아리랑의 밤"에 행운권을 기증한 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함(구족합) 안수인 80여명의 해군장병들이 장병을 위문 초대하여 더욱 뜻깊은 밤을 만들어 주었다. 또, 한인회 신구이사 임원들이 즉석에서 객를 위한 선물을 이 장학선생께서 장병을 인솔한 김종호 중령에게 조국방위를 위해 수고하신 장병들에게 이 자리에서 유쾌히 즐길수 있도록 마실수 있는 술값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동포의 정을 나누실수 있었다.

### 근무중인 해군장병에 선물

이날 "아리랑의 밤"에 참석치 못한 일부 해군 장병들에게는 한인회와 씨애틀에서 「日光園」과 타코마에 「東洋園」을 경영하고 있는 문수만씨가 맥주 1통을 선사하였다.



### 타코마 부인회에서

타코마 부인회장이며 한인회의 홍보원 이사인 남희 노을쓰 여사가 부인회 임원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장병들을 위로하였으며 조국을 위해 보람찬 임무를 완수하길 부탁하면서 사기를 앙양시켰다.

이리랑의 밤에 신구이사 임원들이 즉석에서 객를 위한 선물을 이 장학선생께서 장병을 인솔한 김종호 중령에게 조국방위를 위해 수고하신 장병들에게 이 자리에서 유쾌히 즐길수 있도록 마실수 있는 술값을 전달함으로써 따뜻한 동포의 정을 나누실수 있었다.

이리랑의 밤에 행운권을 기증한 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 日光園 문수만
- 동양원 배수만
- 아리랑바 남심삼
- 東西苑 손착근
- 오대양 임용근
- 신라무역 신동준
- 京(團) CHIN, Ronald
- Uwajimaya Domio
- 한미자선회 조지문
- 새서울 최명철
- 한국의집 최의환
- CROSBY AUTO PARTS 이원구
- 고향식품 이원구



# 을모년을 "교민 봉사해"로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 1975년도 첫 정기 임원회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 Northgate 근처에 있는 한인회 회의실에서 새해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임원회가 조영 부회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 이날 각 부서별 한인회 사업계획 및 기탁사항을 자정이 넘게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이날 토의된 안건중 주요골자만 몇가지 소개하면
- 한인회를 "교민 봉사해"로 칭하고 일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한다.
  - 신년도 예산안 작성, 이사회에 제출
  - 신년도 예산안 8,000불로 책정
  - 한인회를 월간으로 계속 발간
  - 신입교포들에게 정착할수 있는 봉사의 길을 마련한다.
  - 경로관리를 배틀고 노인들을 위로한다.
  - 발전하는 한인사회에 운동경기를 통해 친선을 도모한다.

지난 1월 4일 새 「경원」에서 신구 한인회 이사, 회장단 및 임원과 회관건립 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구법회 전 한인회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한인회 발전과 재임기간 동안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1,000불을 돌파한 한인회보의 배부, 아리랑의 밤을 400여부 (광고비 제외) 흑자를 낸 사실, 교양강좌, 여러차례에 걸친 친선운동경기, 각종 기념행사 및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이국땅에서 향수에 젖은 교포들을 위해 적은 심의나마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임 신구법 회장은 한인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잘 할 일은 이어 받을 것이며 개선하고 발전해야 될 점은 여러분과 상의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한인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년을 "교민 봉사를 위한 해"로 칭하고 밝은 한인회를 이룩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 신회관 한인회관 건립기금 또 200불 회사

새 이사장에 전계상 박사. 부이사장에는 이현기선생.

지난 1월 19일 한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첫 번째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한인회가 발족한 이래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두 원로 이사인 전계상 박사와 이경희선생 두 분께서 임기만료된 이사장직과 부이사장직을 각각 사퇴함과 동시에 이사직도 사퇴한다고 통고해 왔다.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부회장고 1년간 더 유임하도록 전하기로 했다. 이어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에 들어가 전계상 박사가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이현기선생께서 부이사장에 선출되었다. 이날 임원회에서 제출될 예정이었던 예산안은 회관설립 위원회의 재무보고가 아직 없었어서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한인회 사무소 이전

작년 10월 처음 개소되었던 한인회 사무소를 정비절약과 회관단의 능률적인 업무를 위해서 Northgate 근처에 있는 신회법회장 소유 건물내에 한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급한사항이나 연락사항은 주소: 11514 15 N.E. Seattle, Wash., 98125 전화: EM5-6363, 회관대 전화: 778-1972.

## 자동차 면허증 갱신 신고

해마다 자동차 면허증 갱신 (Vehicle License Renewal) 신고를 2월 초에 마감하는데 금년에는 2월 4일까지이며 면허증을 수취한 후 3개월쯤 만료판에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리 부착하고 다니면 도난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서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 문수만씨 향후 20년

## 한인회비 200불 납부

씨애틀의 日光園 (NIKO GARDEN)과 타코마에서 東洋園 (ORIENTAL GARDEN)을 경영하는 문수만씨는 날로 발전하는 한인 교민사회의 번영과 2세, 3세들에게 조국의 얼을 이어 줄수 있는 한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20년간 (가족당 10불로 계산)의 한인회 회비를 십납함으로써 모두가 참여하고 친목과 우리의 권익을 주장 할수 있는 한인회가 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문수만씨 (46세)는 (복직지는 경남 부산이지만) 부모님들이 일제때 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었기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이사가야 시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도 3단인씨는 현재 일본 유도관 고문으로 많은 후진들을 배출했다.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슬하에 두고 있고, 한미 자선회라는 봉사단체에도 관여하고 있다.

## 정신여고 선교증찬단 공연

###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에서

방미순회중인 정신여고 선교증찬단이 타코마의 중앙교회에서 1월 24일 저녁 시에 공연을 한다고 했다. 정신여고 선교증찬단은 미국인들의 대 한국 선교활동에 감사하고 미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여 전파하기 위해 1971년부터 송천호 박사가 대표로 있는 Teen Life Informational 초원으로 매년 미국에 와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작년 12월 9일 도어한 이 증찬단은 기획자 최훈차교사, 설교사 박종기목사, 송천호 박사, 인솔자 김상권선서목사,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1백 50여회의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한다. 타코마 한인중앙교회 (장남식 목사 사무) 교회주소: 3576 So. "D" St. Tacoma, Wa. 전화 472-9463.

## 이병익씨 고마운 친절

서울 신일중에서 15년동안 선광담 시계집을 경영하다 이번은 이병익씨는 틈이 교포들의 고장난 시계를 무료로 고쳐주어 정성이 자라. 시계보다 수리비가 엄청나 버려두는 시계를 풀 통한 기술로 즉석에서 원상복구. 틈들러 도와 드릴수 있다니 시계에 이상있으면 일차 상의하는것도 도움이 될듯하다. 이병익씨 주소는 12 15 N.E. 55 St. Seattle, 전화 525-9031. 한인회 봉사부

(1면에서 계속)

발전하는 한인회의 전통이라고 하지만 보다 야망을 가진 대외의 광장을 마련할 기회를 앞으로 갖기를 바라면서 각년 총회에서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의해 회장으로 취임된 본인으로서의 역시 총회에서 선출된 훌륭한 두 분의 부회장과 상의하여, 보다 성실하고 민사회를 위해 봉사 할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임원으로 모시고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바라는 한인회가 되도록 굳게 약속하면서 일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인회는

- 첫째,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진 정한 친목·봉사 단체가 되어야 겠으며
- 둘째,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의 권익을 정당하게 정부로부터 찾아야 하며 또 敬老思想과 아울러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한 찾고자 노력하는데에 강력한 풍속과 선조를 기리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9) 대변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다 해야 하며
- 셋째, 7천 교포의 모체와 구심점을 갖춘 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 단결 협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1975년도 한인회의 사업목표와 계획을 우선 지명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1) 한인 회보를 계속 월간으로 발행하여 회관이 없는 교민 여러분께 도움되는 소식과 뜻을 전하고 애로사항이나 희노애락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한인회의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되 과거에 잘한것은 이어받고 시정할 점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3) 새로 오신 교포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알선 및 동역을 도와준다. (4) 직업을 못구한 교민들에게 제일 먼저 한인회를 찾아올수 있는 풍경을 조성한다. (5) 이민국 수속관계, 통역 및 기타봉사를 한다. (6) 개인 및 가족적인 법적문제를 상담봉사한다. (7) 미국 각 정부단체 기관을 연구하여 교민의 이득되는것을 취한다. (8) 敬老 관치를 부인회 봉사사업으로 전개하며

위에 열거한 몇가지 사항외에도 해마다 우 짐을 나누는 배부비-씨애틀 친선 피크닉이나 타 코마-씨애틀 친선 축구시합, 각 교회 대항 체육 대회, 한인회 주최 야유회등 신랄한 행사를 좀 더 보람있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우조족 이와같은 한인회 사업을 성공리에 계속 이어 갈려면 .....

첫째,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되고 우리 단 체만이 해야한다는 독신의식을 배제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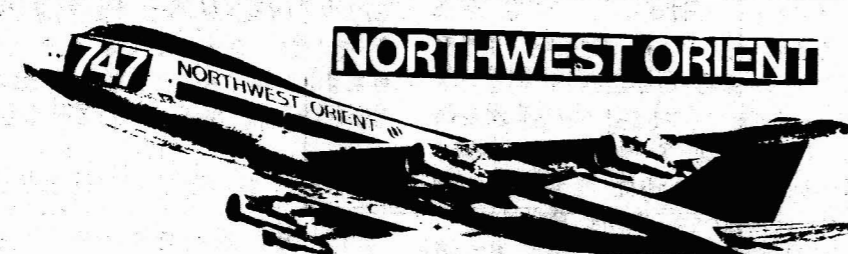
둘째, 누구만을 위하고 누구만의 한인회가 된 다든지 또는 2개의 한인회나 유사한 한인회를 만들어 상당한 교포들에게 서클품을 안겨주는 것은 옳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뜻하는대로 알렸음이다마는 교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성원과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고 충고하는 마음을 웃웃에서 보 내주시다면 누구든지 반기고 일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심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 교민 여러분의 가림마다 건안 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 복이 깃들어 주시길 거듭 기원하는바 입니다.

1975년 1월 일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창성 624-2227  
624-2226  
RES 776-7115

Lloyd Bldg. Room 606  
5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 김의여행사



# 謹賀新年

주 상향총 영사관 총 영사 윤 찬	워싱턴주 한국 영사관 명예 영사 리차드 매차슨
대한 무역 진흥공사 소장 이기룡 <small>씨애틀 사무소</small>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 회장 김길랄 총무 최명철
씨애틀 제일 한인교회 목사 김계성	씨애틀 한인 형제교회 목사 최몽걸
씨택 한인교회 목사 김동협	씨애틀 한인 연합교회 목사 한응선, 최요한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목사 정남식	타코마 제일 한인교회 목사 김계성
워싱턴주 한인 골프클럽 회장 안병영	FIRSTLINE PROPERTIES INC. 대표 신호범
김의 여행사 대표 김창성	안병용 부동산 협회 phone: 244-8198
한미자선회 이사장 문수만	

합 병준 주미대사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아울러 한인회 발전을 기리는 신년인사를 한인회 회관앞으로 보내왔다. 합대사께 서도 새해에 티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길 빈다.

윤 찬 총영사도  
각년 씨애틀을 자주 방문하여 워싱턴주의 한인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던 상향주 재 윤찬 총영사도 1975년에는 보다 알찬 한 인회가 되어 7천여 한인교포사회의 희망찬 내일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는 격려와 아울러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1896



고대 교우회 송년잔치

지난 12월 23일 오후 7시에 황수철 와싱턴주 고대 교우회 회장님께서 20여명의 교우가족들이 모여 송년잔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와싱턴주에 거주하면서 아직 이모임을 모르고있는 교우들은 연락해 주시면 반갑겠는 황회장의 부탁!! 주소: 13544 35th N.E. Seattle, Wash. 98125 전화: 364-2729

「주소란」 설치

급변하는 한인 주소록을 발행치 않으므로 작년도에 발간된 주소록에 누락된 분의 주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이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편집자에게 보내주시던지 한인회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다음호 회보「주소란」에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회보를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Tel. 632-5322

알림  
월간 「호반」과 「낙서부락」은 기사가 넘쳐서 다음 호로 미룹니다.

와싱턴주 한인용접사전문회

창립 총회

1월 18일 오후 6시 김철재씨 대에서「와싱턴주 한인 용접사 전문회」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날 30여명의 용접사가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회의에서 창립목적은 “한인 용접사 회원간에 친목도모만을 위한” 바람직한 모임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심의 통과시키고 무기명 투표 임원선거를 실시했는데 회장에 심상원씨 부회장에 하재준씨가 당선되고 총무에 이종식, 재무에 정섭, 감사에 김준명씨가 1년 임기동안 수고한다고 한다.



Phone (206) 588-5000

東洋園

멀리 고국을 떠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교포 여러분에게 고국의 향수를 달래 드리며 내일의 희망과 보람을 드리는 동양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양원"은 12822 Pacific Hwy. S.W., Tacoma 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피로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 동반 하시기와 찬우분, 그리고 다정한 연인들 모두 일차 왕림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당 동양원에서는 식비에 만점을 기하여 식감과 각별 라운지를 겸비하고 있으며 각별 라운지인 "도라지"에서는 각종 양주와 특히 한국의 명주인 O-B 맥주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맥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한식과 중국 요리로서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드리고 있으며 특히 불고기와 불갈비는 당 동양원의 자랑거리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아홉시부터는 한국에서 초빙한 유명한 악단과 미남 가수이며 올겐 연주자인 전태훈군이 멋진 노래로서 여러분의 향수를 달래 드리고 있습니다.

\* 매주 월, 수, 금요일은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동양원 전속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North Gate 에 자리잡고 있는 "오대양" 식품점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하여 다시 새벽 2시에 타코마를 출발하여 시애틀로 돌아오는 왕복행으로 여러분의 교통불편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8시에는 Main St. S. and 6th Ave 에 있는 日本新聞社 앞에서 동양원까지 오는 차편이 있어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배수환 올림



한인회 회비 납부요망

한인회 재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5불 이상이며 만 18세 이상인 학생 및 독신자는 3불인데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본회의 재무인 김종구에게 우송해 주길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때는 수표나 "머니오더"를 이용하고 현금은 절대로 동봉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 회비를 내신 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되는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1975년도 회비 납부자

1. 이창희	\$ 10.00
2. 전계상	10.00
3. 이현기	10.00
4. 신호법	10.00
5. 조요한	10.00
6. 남희노울스(Knowles)	10.00
7. 황수철	10.00
8. 조영	10.00
9. 김종구	10.00
10. 김법회	10.00
11. 김길량	5.00
12. 김현중	5.00
13. 오계희	5.00
14. 남성삼	10.00
15. 장권섭	10.00
16. 주상걸	10.00
17. 김원근	10.00
18. 박종세	10.00
<hr/>	
	165.00

등정

안 병용씨 (프론티얼 보험) - 보험업과 한국 자유신문 사에를 지사장을 겸했던 씨는 이번 "부동산" 업을 추가함으로써 너무 바빠 자유신문 지사장직을 사임했다는 소식. 신문사 문외는 본사에 연락키요망  
조영씨 (한인회 부회장) - 다운타운에 아담한 "오렌지"라는 헬버거 스토어를 개업하여 성공중.  
ORANGE JULIUS

결혼

김창섭씨 (김의 여행사대표) - 여행사 업무로 너무 바빠다 보니 결혼신고 늦었다고 오는 1월 25일 오후 5시 Rolan Lasen 목사주례로 결혼식을 올린다. 장소는 4501 46th N.E., Seattle. 새해에 복 많이 받고 사업도 번창하길!

사망

지난 12월 13일 Mrs. 명희 Vaughn 씨의 시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별세.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후 경과가 좋게 팔양중 잡자기 사망. 부군 John Vaughn Junier 씨는 U.W 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는 만학의 학구파. 주소는 11527 22 Ave. N.E. Seattle, Wa. 98125

\* 조지문씨의 20년 회비 \$200은 1974년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납부명단에는 누락됨. (재무부)

주소란

- Kim, Young Jin 824-0740 23653 Pacific Hwy S. Kent, Wash. 98031
- 김영진
- Morgan Bok Soo 353-0130 7420 Upper Ridge Rd. Everett, Wash. 98203
- Morgan Bok Soo
- Kim, Sang Gun 524-8970 6501 46 N.E. Seattle, Wash. 98115
- 김성근
- Uhm, Kyung Sook 939-2538 2030 Elm St. S.E. Auburn, Wash. 98062
- 엄경숙
- Mun, Yu Ki 364-4988 14022 35th Ave. N.E. Seattle, Wash. 98125
- 문유기
- Kim, Su Chung 623-0839 1305 Ward St. #25 Seattle, Wash. 98109
- 김수정
- Merrict, Hea Kyung 322-1249 1901 E. Lake Ave. E. Seattle, Wash. 98102
- Choi, Myung Chull 523-1266 을 632-2587로

**뉴코리아 식당**  
서울서 일류 요리사 조빙!!  
일차 왕림하시어 맛보시지 않으렵니까?  
한국, 중국, 일본 요리 점심특별 99¢ (11:30 ~ 4:00)

오늘 저녁은 어디까지 먹을까? 의견제출!  
나는 한국 식당, 중국 식당, 일본...  
뉴코리아 식당  
올라!! 뉴-코리아 식당에 가면 모든것이 OK.  
오!! 물론 한국사람은 한국 식당을 애용해야지.  
6815 Roosevelt Way N.E. 523-7661  
Open 11:30 am ~ 9:30 pm (월 ~ 토)

**SUCCESSFUL ARIRANG NIGHT**

More than 450 people filled the Sea-Tac Motor Inn's banquet Hall for the December 28, 1974 Arirang Night.

Two bands (Arirang Tavern's and Tacoma's Oriental Garden's) provided Korean and American music. Greek belly dancing and social dancing were major part of the entertainment.

There were door prizes and Kentucky Fried chicken was served.

It seems Arirang Night gets bigger every year, drawing a large crowd.

\*\*\*\*\*

This newsletter will be published regularly. To make it worthwhile, your suggestions and comments are welcome, which please send to Mr. Chong-Sye Kwak, the Editor or the President of this Association. When you have changed your address, do not forget to notify us of the change of your address.

**CHAIRMAN AND VICE CHAIRMAN ELECTED**

At the January 18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Dr. Ke-Sang Chun was elected Chairman and Mr. Hyun Ki Lee, Vic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for the year of 1975. They were ele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lso, Shin, Pres-  
ciation's  
this year.  
was a plan  
by invitin  
The purpose  
is to bring  
of the Korea  
by the local community.

No definite date is set but it will be held sometime in Spring. Our Honorary Korean Consul, Mr. Richard G. Matheson, has suggested the idea and will assist us in the plan.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